

# 이스라엘·하마스 휴전협상 교착...가자 주말 100여명 사망

### 하마스 "1단계 인질 34명 석방"...쟁점, 가자 철군·영구 휴전 '친이스라엘' 트럼프 기다리나...가자전역 보안دت 무차별 폭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휴전협상이 진통을 겪는 가운데 가자지구 내에서는 참상이 지속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휴전 협상에서 뚜렷한 접점은 나오지 않았다. 하마스는 가자지구 종전으로 가는 합의의 일부로 이스라엘의 요청에 따라 1 단계에 풀어줄 인질의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재빨리 성명을 발표해 하마스가 인질 명단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일 시작된 전쟁 목표는 인질 구출과 하마스 궤멸을 통한 안보위협 해소이지만 전쟁 내내 무기는 후자가 있었다는 게 공통된 관측이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번 휴전 협상은 카타르, 이집트, 미국의 중재 하에 카

타르 도하에서 간접 협상의 방식으로 재개됐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협상단을 파견한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견해차를 얼마나 좁혔는지 불투명하다. 구두로 전해지는 협상안을 보면 하마스는 인질 석방의 조건으로 여전히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철군과 영구적 휴전을 요구한다. 이명을 요구한 한 하마스 당국자는 "정전과 철군 문제에 대한 합의와 관련해 점령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그 부분에는 아무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민족주의 극우세력을 기반으로 삼는 네타냐후 정권은 새 안보 질서를 구축한다며 종전 후에도 가자지구를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궁극적 전후



휴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역에 보안دت이 폭격을 가해 참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가자지구에서 희생자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는 모습. /AFP=연합뉴스

비전인 '두 국가 해법'에 어긋난다. 네타냐후 정권은 팔레스타인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합의를 전제로 평화공존을 추진하는 두 국가해법에 극도로

부정적이다. 주변국들은 애초 가자지구 병합을 갈망하던 이스라엘 극우세력이 현재 가자지구 재점령에 눈독을 들인다는 의심까

지 쏘아낸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이달 20일까지 휴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연합뉴스

## 작년 美 로켓 발사 145건 '역대 최대'

### 발사장 3곳 대부분 집중 경쟁 치열...신규 발사장 확보 나서

미국에서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 비행이 최근 몇 년간 많이 늘면서 로켓 발사장이 포화 상태가 됐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지구 궤도에 도달한 로켓 발사가 145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치로, 2017년의 5배 수준이다. 이 가운데 134건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였다. 로켓 발사 대부분은 플로리다주에 있는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와 케네디우주센터, 캘리포니아주의 밴덴버그 우주군기지 등 3곳에서 이뤄졌다. 우주 기업과 미 정부가 향후 더 많은 우주 발사를 계획하고 있어 이 3곳의 발사장은 갈수록 혼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들 3곳 중 어느 한 곳이 약천후

나 사고로 수개월이나 수년간 사용이 불가능해질 경우 우주 발사가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새로운 발사장을 개발하거나 그동안 수요가 없어 사용하지 않던 소규모 발사장을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알래스카주 코디액섬에 위치한 '퍼시픽 스페이스포트 콤플렉스'는 그간 연간 최대 발사가 3건에 불과했지만, 향후 연간 최대 25건 발사할 수 있도록 정부 허가를 추진 중이다. 이미 향후 5년간의 발사 일정이 채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 발사장 건설에는 여러 제약이 따른다. 로켓은 인구 밀집 지역 비행을 피하기 위해 통상 해안가에서 발사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소음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우주공항이

거의 20년 전 내륙에 위치한 공항으로는 최초로 연방항공청에서 항공기를 이용한 상공 로켓 발사를 허가받았지만, 아직 한 번도 실제 발사하지 못했다. 이 우주공항 관계자들은 로켓을 내륙에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를 의뢰한 상태. 2022년에 설립된 '스페이스포트 컴퍼니'는 해군에서 사용하던 길이 180ft(약 50m)의 선박에 로켓을 싣고 바다로 나가 발사한다. 메인주는 발사장뿐만 아니라 정보분석센터와 연구개발 허브를 포함한 우주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발사장 포화 문제를 완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연방항공청 주도로 국가우주공항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발사장 이용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로운 세계 최고령자, 116세 축구팬 브라질 수녀"

### 장수 비결 '신앙과 긍정적인 마인드' 꼽아

지난해 말 세계 최고령자였던 이토 오카 도미코(일본·향년 116세) 별세 이후 새로운 세계 최고령자는 브라질 출신 축구팬인 카톨릭 수녀로 확인된다. 장수 노인 연구단체 론제비퀘스트가 5일(현지시간) 밝혔다. 론제비퀘스트는 홈페이지에서 이나 카나바호(사진) 수녀가 이날 기준 116세 211일을 살았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1908년 6월 8일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주)에서 태어난 카나바호 수녀는 10대 때부터 종교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브라질 매체 GI은 카나바호 수녀가 현재 히우그란지두술주 중심 도시인 포르투알레그리에 있는 테레사수녀회 수녀원에서 살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 1일 노인의 날을 맞아 가진 인터뷰에서 활채어를 탄 모습으로 올해 자신의 나이에 대해 "조금 먹었어요. 116세"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110번째 생일을 맞아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축하받기도 했다. 지난해 2월 브라질 수녀원 축제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카나바호 수녀는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거나 야생화를 소재로 한 그림을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AP는 보도했다. 장수의 비결에 대해 카나바호 수녀는 '신앙'과 '긍정적 마음가짐'을 꼽아

면서 "저는 젊고, 아름답고, 친절했는데, 이걸 여러분 모두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자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카나바호는 현지에선 열성적인 축구팬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포르투알레그리를 연고로 하는 브라질 명문 프로축구팀 SC 인테르나시오 나우의 지난해 '최고령 서포터의 생일 선물'로 유니폼을 선물하기도 했다. 앞서 세계 최고령 수녀로 알려졌던 프랑스의 앙드레 수녀는 2023년에 118세를 일기로 선종했다. /연합뉴스



##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리 품질



고볼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180,000

헤드	단형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형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인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형나부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